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방청자들과 력사적인 당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월 16일 당대회방청자들과 당 제8차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옹바른 전진방향을 밝혀주시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활로를 펼쳐주시

총비서동지께 최상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회를 계기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새로이 가다듬고 앞으로의 실천투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달성할 드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방청자들이 대표자들과 함께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친구마다에서 혁명의 불씨가 되고 전진의 기수, 선구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견인발발, 헌신분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적극 기여할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월 18일 새로 선거된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을 당대회장에서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우리식 사회주의건설행로에서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중임을 맡겨주시고 력사적인 당대회장에 불러주시어 크나큰 사랑과 동지적민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참가자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장내에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을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으로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믿음과 기대

속에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제8기 지도기관 성원들로 선거된 그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의 핵심중의 핵심인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당의 튼튼한 단결과 존엄

높은 령도적권위를 위하여,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행과 승리를 위하여 보다 책임적으로 분투할것을 기대하는 전체 당원들의 거대한 신임을 순간도 잊지 말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제8기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숭고한 리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하며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서의 책임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원수님의 위대한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부강발전을 이룩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을 부르시어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면서 뜨겁게 축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본은 책임일꾼들의 헌신성과 대담성이라고 하시면서 내각 성원들이 당을 믿고 모든 사업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통이 크게 내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하여 자기



부문에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해야

실제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각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사업이고 당 제8차대회 결정 집행이자 내각사업이라고 다시금 강조

하시면서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인재를 증시하며 경제사업전반을 새로운 혁신,

해나갈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시었다.

본사기자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을 지향하고 장려하는데로 확고히 전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 다시금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이 애국충정과 이민위천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당과 인민의 기대와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통체로 맡겨주시고 크나큰 믿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올리면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과업판찰에 매진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진일보를 이룩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출판인쇄부문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당 제8차대회의 성과적보장에 기여한 출판인쇄부문 근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원수님을 뵈옵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대회준비사업에 바친 평범한 근로자들의 소박한 노력을 귀중히 여기시며 거듭 감사를 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쳐준 근로자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도 당사상전선의 중요한 초소를 맡고 있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안고 무한한 헌신성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자애로운 어버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당 제8차대회 결정판찰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온 나라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쟁과 전진의 기세로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 군당책임비서, 인민위원장, 협동농장경영

위원장들,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직문제 둘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이 전원찬성으로 임명되었다. 회의는 중앙검찰소 소장을 해임 및 임명하였다.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김덕훈대의원이,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고경범대의원이 하였다. 보고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 기초하여 대의원들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탁월한 령도와 우리 인민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기간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정형이 정확히 총화결산되고 올해의 국가예산도 훌륭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 결함들과 원인, 교훈들을 심각히 분석총화

고 새로운 5개년계획실현을 위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로 내세운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9(2020)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본사기자

신심프뉴이 가리라



공화국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되는 투쟁과 전진의 대회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서고 있다.

올 금치 못하고 있으며 누구나 더 큰 승리의 려정이 환히 내다보인다고 격정을 토로하고 있다. 눈앞에 어려오는 부국강병의 휘황한 아침을 벅차게 안아보며 승리와 번영의 리정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다.

리의 명확한 진로를 밝혀 주시었을뿐 아니라 특출한 령도력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공적은 력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데는 누구나 사무치게 절감하고 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갈 애국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해제로 지난 몇해어간 어렵고도 시련에 찬 나날들을 헤쳐왔다.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들은 나라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붙여왔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결출한 령도력,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완강하고도 명확한 실천 행동으로 특기할 승리들을 쟁취하였다.

중성의 80일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들을 이룩하여 어머니당 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총정수로 보장하였다. 비록 승리로 향한 노력과 전진을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들이 기승을 부렸지만 공화국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은 백방으로 다져졌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조선사회주의의 절대적우월성과 자립, 자력으로 전진하는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은 만천하에 더욱 과시되었다.

경도자에 대한 일련단심으로 불타고 불굴의 정신력과 용솨는 자강력으로 만장약된 천만의 힘은 산악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새로운 기적과 전설의 력사를 창조한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이라는 조선특유의 위력한 주제의 힘으로 경사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보위한 공화국인민들은 비약과 창조의 연속패승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승리신화를 편이 이룩해나갈 것이다.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위대한 상징이시며 대표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것은 인민이 받아안은 행운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경사이다. 고금동서의 장구한 력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흠바른 령도자를 모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담으로

미증유의 거창한 변혁과 기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엄혹한 시련과 난판들이 앞을 가로막았던 지난 수년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결출한 사상과 령도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정치대변론을 펼치시며 시대와 력사, 나라와 인민앞에 전후후무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으로 변천되는 력사발전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고 민족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명철하게 천명하시였으며 부강조국건설과 사회주의승

리의 명확한 진로를 밝혀 주시었을뿐 아니라 특출한 령도력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쳐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거룩한 공적은 력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하기에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온 격동적인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그이이사야말로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

라는데는 누구나 사무치게 절감하고 있으며 그이의 두리에 일심으로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갈 애국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사상과 결출한 령도,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으로 조국과 인민을 새로운 승리로 향도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장창한 것이다.

해제로 지난 몇해어간 어렵고도 시련에 찬 나날들을 헤쳐왔다.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들은 나라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붙여왔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결출한 령도력, 강인담대한 배짱과 의지를 지니시고 공화국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완강하고도 명확한 실천 행동으로 특기할 승리들을 쟁취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후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이 마련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소중한 성과와 토대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것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는 온 나라 인민들은 정면돌파전의 기세드높이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최대의 정치적대경사로 빛내이고

경도자에 대한 일련단심으로 불타고 불굴의 정신력과 용솨는 자강력으로 만장약된 천만의 힘은 산악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새로운 기적과 전설의 력사를 창조한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이라는 조선특유의 위력한 주제의 힘으로 경사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보위한 공화국인민들은 비약과 창조의 연속패승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승리신화를 편이 이룩해나갈 것이다.

전반사업의 전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화국의 전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것으로, 명백한 리정표를 세운것으로 되며 주체조선의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견인하는 계기점으로 되고 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 선과 전략전술적 방침을 숭고한 관점으로 대하고 영예롭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희망찬 새해의 1월에 환히 밝혀진 전진의 리정표를 따라 부단히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려는 신심과 용기에 넘쳐 있다. 전체의 위인을 영명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련속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 있기에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공화국인민들의 새로운 대전군은 반드시 앞찬 성과와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힘으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에서 여덟번째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똘똘 뭉친 공화국인민들이 자립과 자력의 힘으로 안아온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찬란한 시대가 펼쳐진 판건적인 시기에 열린 승리의 대회여서 자못 뜻깊고 의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 개최사에서 겹쌓인 곤난

을 이겨내는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의 두리에 억척같이 똘똘 뭉친 단결과 단합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불타는 애국헌신과 위대한 승리로 당 제8차대회를 굳건히 보위해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 사랑을 드린다고 하시었다. 공화국인민들은 나날이 가중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압박, 류레없는 경제난판과 해마다 겹쳐드는 자연

원대한 투쟁강령, 승리의 리정표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 는 말이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사회주의위업의 장창한 전진과 앞날을 확신성있게 기약해주는 원대한 투쟁강령, 승리의 리정표를 환히 밝혀주었다.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총적방향으로 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기본종자로 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과업과 방도들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사회제도의 공고화를 위하여 제시된 과학적이고 흠바른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국가

경도자에 대한 일련단심으로 불타고 불굴의 정신력과 용솨는 자강력으로 만장약된 천만의 힘은 산악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며 새로운 기적과 전설의 력사를 창조한다.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이라는 조선특유의 위력한 주제의 힘으로 경사의 대회, 영광의 대회를 보위한 공화국인민들은 비약과 창조의 연속패승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승리신화를 편이 이룩해나갈 것이다.



얼마전 온 나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인민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을 온 세상에 더욱 뚜렷이 과시하였다.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되는 대회장의 전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한쪽벽면에 큼직하게 새겨진 《이민위천》이라는 성스러운 글밭이었다. 당대회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고 중요한 로선과 정책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이런 당대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이민위천》의 글밭이 나붙은것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헌신적이며 인민적인 모습을 생동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었다. 하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본래로 되였으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에게 더욱 멸사복무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셨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제시하신 사상도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할데 대한 사상이요 제시해주신 구호도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모든 사색과 활동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도록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면서도 혁명가들이 혁명을 하자면 우리 인민으로부터 받는 값진 믿음은 생의 전부로 받아안아야 한다고, 우리 인민과 같은 훌륭한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충실하고 부지런한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자고 하시며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시는 원수님이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서는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설수 있었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시기 위한 복귀대진이 펼쳐져 재해지역 인민들이 불과 몇달사이 행복의 보금자리로 주인이 되는 꿈같은 현실들도 펼쳐질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에도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월구월 높여지고 있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당대회의 보고에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을 친인민적, 친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절실히 말씀하시었다. 그런가 하면 당대회의 결론에서도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총복담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하시었다. 이민위천. 정녕 이 네 글자의 숭고한 리념으로 더욱 빛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결집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해 인민을 위한 크나큰 사랑과 전진의 력사가 또다시 수놓아지게 될 것이다. 리영수

이민위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군민연합대회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진행



자강도에서



황해북도에서



평양시에서



강원도에서

누리에 빛나는 조선의 영광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전제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총의에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긍지를 안고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기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펼쳐지는 미증유의 번영과 창조와 신화들을 직접 체험하고있는 공화국인민들은 오늘 시대의 박찬 흐름과 더불어 온 누리에 빛나는 공화국의 영광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절감한다.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세계를 펼쳐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겨내는 자강의 역센 힘, 공화국인민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한 최강의 권력, 이 모든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이 누리는 영광이고 행복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투철한 자주정신과 막강한 국력을 떨치며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높이 칭송하고있다. 중국, 러시아, 수리아, 벨라루스, 라오스, 도이칠란드, 영국, 이탈리아, 에스파냐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정당들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인사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친선대표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조선식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새로운 승리를 확신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렸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경모의 목소리는 이번만이 아니

었다. 이미전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의 평화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즐기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을 토로해왔다. 로씨야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싸이 우말라프바는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시며 시대의 고조기를 열어주시는 김정은동지께 경의를 표하며, 김정은동지는 진정한 애국자,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탈리아의 지중해개발은행 리사장인 장 까를로 발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방식에서 받아안은 느낌에 대해 피력하면서 《김정은동지는 가장 이상야말로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사상리론가》, 《황홀함의 극치를 이루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지니신 매력적인 정치가》이며 일대 한 구상하신것은 반드시 최상의 수준으로 해제시키는 《제일창조자, 실천가》이고 구부의 담력과 배짱, 단호하고 명활무쌍한 기질을 지니신 《강철의 명장》, 《민족존엄의 최고수호자》, 세계가 우리를 정중하는 《정치적 거장》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해 애혹과 흠모의 마음을 토로하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승고한 인력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 《따뜻한 인성미를 지니신 인민적인 령도자》 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 선전하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키》는 《리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과연 어떤분이신가. 한마디로 그

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아버지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그이는 세련된 령도와 비상한 전개력, 완강한 투지를 지닌 실천가형의 지도자이다. 그의 령도밑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강해지고있다.》라고 피력하였다. 로씨야의 어느 한 출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실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기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현 세계의 가장 젊으신 국가령도자》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기상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무슨 일에서나 단숨에, 전격적으로 해제 끼는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질이다. 기존의 공식과 리론에 구애되지 않고 10년 유행으로 앞당기며 비약하는 과감한 돌진의 기상이다. 이룩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연속 공격의 기상이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천하를 뒤흔드는 초강경의 기상을 지니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메히코사회주의인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를 모신것은 조선의 더없는 대동운이며 조선민족이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부, 장군복이다.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이 그 어떤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세계는 보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진정 온 누리를 밝히는 태양과도 같이 시대의 중심에 거연히 서서 새 세계를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은 세인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비약하고있으며 세계 자주화위업은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자주정치의 거장, 인류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력에 의해 세계정치기류는 사회주의의 조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있다는것이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유럽의 한 정치평론가는 《세계정치기류는 지배와 굴종으로부터 자주와 기류로 뒤바뀌어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조선은 자주라는 하나의 축으로 투시해볼 때 이 축이 돌아가면 지구의 바람, 세계정치기류를 좌우하는 큰 날개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리라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렇게 봐도 조선은 확고히 새로운 세계정치흐름의 방향타를 쥔 지위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라고 평하였다.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인다!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사상과 령도가 안아온 세계변화이며 불가역적인 추세이다. 그것은 부정할수도, 변화시킬수도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것은 공화국인민의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복이며 인류의 행운인것이다. 세계의 진보적인류가 그토록 우리러 흠모하며 지지 않는 회색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가는 공화국인민을 보며 인류는 더욱 굳게 확신한다.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는 조선의 영광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김령성

시

더 잘 모시리 우리 원수님

리 송 일

어찌 다 노래할수 있으랴 온 나라에 흠여넘치는 격정의 파도 아,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감격이여 기쁨이여

넘치는 이 행복 꽃으로 피우면 가장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리 가슴을 치는 격동 노래로 울리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울려 퍼지리

조선로동당 총비서! 불리 송업한 그 부름엔 있어라 그이 품에 안겨 우리가 누려갈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이 보다 아름다우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다시 목매어 그 부름 불러보련

산악처럼 든든해지는 굳세인 믿음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 휘몰아치내도 두려움없고 주저가 없을 신심과 용기가 백배로 용솟음치거니

오직 조선로동당만이 천만자식의 운명 지켜줄수 있기에 오직 그이만이 내 조국을 이 행성우에 강대한 나라로 빛내실수 있기에 다함없는 지지와 신뢰 뜨거운 진정으로 인민이 높이 떠받든 아,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원수님

얼마나 더욱 눈부실것이나 인민을 이끌어 승리의 년륜만을 아로 새길 김정은시대 황홀한 그 전도는 얼마나 더욱 기세충천할것이나

시

운명의 하늘

김 태 룡

인민을 위하시는 원수님진정 우리 잘 알고있다 했지만 그 간곡함 미처 다는 몰랐던가 당 제8차대회 뜻깊은 연단에서 원수님 하신 뜨거운 말씀이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겠다 하신 그이 참된 인민의 총부담게 위민현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그는 엄숙히 선포하시었나니

아, 운명의 하늘! 가슴을 치는 절렬함에 열렬함에 솟구치는 눈물 감잡지 못한 인민이여 목메임에 걱정 터질수 없을 무얼 하라 소리없는 이 눈물이 가장 진실한 격동의 용암으로 끓지

않느냐

늘 인민을 심중에 안고 사시는 그이 마음도 많이 쓰시고 애도 많이 태우시며 지켜주고 풀어주시는 은덕 하늘과도 같건만 오히려 자신의 운명의 하늘이라 인민을 높이 떠받들어 주신 우리 원수님

그이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을 두고 말해보자 인민이여 아버지령도자로 받들어모셔야 할 그 세월의 하루하루가 우리 원수님 인민을 받들어오신 이만위천, 위민현신의 나날 아니었던가

재난을 당했어도 불행을 모른 인민

리 송 일

력사의 역풍 쳐갈기며 질풍노도쳐 가는 강대한 조선의 그 기상은

오늘의 이 감격 이 격정 세월의 끝까지 변함없는 중심으로 이어 더 잘 모시리라 경애하는 원수님 일터마다 비약의 나래 펼치며 세세년년 기적으로 새 승리 안아 오리라

끝없는 흠모의 정 터치며 인민이 따르고 받드는 우리의 령도자 역적으로 인민을 품안으시고 영광과 번영의 휘황한 력사 수놓으시는

이 땅우에 펼쳐진 전설도 원수님 주신것

다시 묻노니 말해보자 인민이여 행복이라하면 이렇듯 인민을 위하시는 그 다심하고 극진한 정에 감복의 눈물 마를줄 모르는것 아니던가

그 정과 사랑에 운명을 맡기고 사는 바로 그것이 최상의 행복 아니던가

아, 우리의 인민을 운명의 하늘이라 뜨겁게 불러주시는 원수님 끝없는 하늘 가득히 인민은 아버이를 같이 노래하리라 그 품에서 천만년 길이 살리라

《새해벽두를 맞는 북과 미국의 상반된 모습》

남조선언론들이 승리의 신심과 활력에 넘쳐 새해전군길에 펼쳐나선 공화국의 모습과 심각한 혼란과 대결로 새해를 시작한 미국의 상반된 모습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보도하여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는 지난 1월 13일 《새해벽두를 맞는 북과 미국의 상반된 모습》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한다. 신문은 글에서 공화국은 일심단결된 밝은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한 반면에 미국은 심각한 혼란과 대결로 새해를 시작하였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새해에 북주민들은 김정은위원장의 사랑이 담긴 친필서한을 받아안았고

김정은위원장은 서한에서 변함없이 조선로동당을 지지해 준 인민들에게 감사의 표시하고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실 일관단심 변함없을것을 다시금 맹세하였다.》고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1월 6일 트럼프지지자들이 미의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미국정치가 폭란을 맞은 가운데 악성전염병확산으로 하루평균 20만명 이상의 감염자와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백악관과 의회에서까지 출몰이 감염자가 나타나고있다고 썼다고 한다.

신문은 또한 앞으로 온 한해 공화국에서는 일심단결과 열정, 기백과 희망이 차넘치

게 될것이지만 미국에서는 혼란과 대결이 지속될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신문은 《김정은위원장이 새해 첫날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하고 이에 감동된 북주민들이 보답의 일념으로 들끓고있는데 세계적으로 국가지도자가 인민을 받들겠다고 맹세한것은 매우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전하였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악성전염병사태와 경제침체의 여파로 새해행사를 취소하고 우울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는데 비해 북은 이전과 다름없이 매우 흥성이는 분위기로 새해경축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커다란 긍지와 희망을 안고 새해에 들어섰다고 전하였다.

《뉴스》, 《연합뉴스》, 《뉴스1》, 《이데일리》, 《KBS》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도 경에 하 새해를 맞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친필서한을 보내신 소식과 새해 정초부터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소식을 《북 당대회 대정초축전으로 장식, 분위기 고조》, 《공화국특유의 불가항력적 힘 만천하에 과시》, 《국제사회에 가해진 사변적인 (평양 충격)》 등으로 련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북은 북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창창한 전도를 확신성있게 기약해주는 투쟁강령을 마련하

고 김정은위원장을 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전세계에 선포하였다. 당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경축공연과 열병식, 기념촬영 등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며 국가위상을 과시하고 흥성이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은 이전과 다름없이 커다란 긍지와 희망을 안고 새해에 활력있게 들어서고있다고 경탄하면서 올해 북에서는 《이민위협》과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구호 밑에 앞날에 대한 희망이 차넘치게 될것이지만 미국에서는 몸서리치는 죽음과 혼란, 대결이 지속될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다양한 통일운동 벌려나갈 결의 표명

얼마전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북남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의 눈치만 보는 당국에 있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당국이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은 인터넷에 이에 대한 기사를 실고 연말년초 《정부》는 《한》미련함훈련 강행립장, 참수작전을 넘두에 둔 신속 대응사단 창설 등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있다. 군사적갈등을 격화시킬 《한》미련함훈련 강행을 전사작전통제권환수문제와 연계하여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 방향의 전사작전통제권환수는 결국 미국산 무기도입의 무한 늪에 빠지

는것인만큼 과감하게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언론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를 앞당기자!》 등을 2021년 투쟁구호로 제시하고 각계층 시민단체들과의 지속적인 련계를 북남선언리행, 합동 군사연습반대,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투쟁을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일본사이에 갈등 격화

최근 남조선언론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남조선법원의 판결에 반발해나서는 일본의 파렴치한 망동을 단죄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소식을 보도하였다.

《뉴스1》, 《민플러스》, 《민중의 소리》,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정의기억력대》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정의로는 해결을 위한 력사적인 리정표가 될것이다》, 《마땅히 옳은 판결》, 《역사적의의가 크대》고 지지환영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한편 언론들은 《한일관

계가 더욱 악화될수밖에 없다》, 《일본정부는 불수용립장을 밝히고 판결지후 주일한국대사를 조치해 항의했다》,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아시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들의 보도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주권면제론》을 내세우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운운하는것을 비롯하여 일본당국이 반발해나서는데 대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며 일관하게 변변함을 유지해온 일본정부가 이 판결을 계기로 력사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당국

이 법원의 판결을 두고 어정정하게 놀아대고있어 각계층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14일 현 당국이 새로 임명된 일본주재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일본에 대해 《가까운 이웃》, 《동반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남조선법원의 판결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은 그것대로 해법을 찾고 미래지향적발전과정을 위한 대화노력은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 량국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한데 대해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초불민심을 따라야 한다》

— 남조선언론 강조 —

《특별사면》해야 한다. 리명박, 박근혜는 《정치체제의 회생양》이므로 《무죄석방》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반면 여당과 정의당, 사회각계가 이를 《변변하고 럽치없는 요구》라고 락인하면서 《당사자들의 사죄, 반성과 민심의 공감대 선차이다. 현재는 《특별사면》을 말할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리명박, 박근혜사면으로 《국민통합》 안되는 리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국정》통단과 《세월》호참사의 주범 박근혜를 끌어내린건 주운 겨울날 광장에선 수많은 초불시민들이다. 강조하건대 《국민통합》

은 리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용서하거나 타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다. 적폐와의 용서, 타협이 어렵게 《국민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지는 과거 사례를 봐도 알수 있다. 끝없는 5.18에 대한 모독... 이것은 전두환사면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2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전두환을 철저히 단죄하지 못한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고있다. 무엇보다 극우세력과 《태극기부대》를 중심으로 5.18모독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두환신군부에 목숨을 걸고 맞선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는 가짜뉴스도 여전하다. 전두환, 로태우의 사면으로 인한 지난날의 교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리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적폐세력과 타협을 벌릴것이 아니라 철저히 초불민심의 편에서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초불민심이 바라는 일에는 미적대도 리명박, 박근혜사면을 거두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불민심에 따라야 한다. 지금도 《자방(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부정부패와 《세월》호참사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지지부진한 마당에 리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면 적폐청산은 영영 물 건너가게 된다. 《정부》는 《적폐사면》이 아닌 적폐청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심은 하늘이라는 말이 있다. 초불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인 철저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아말로 《국민통합》을 위한 열쇠다.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끊임없이 꾀하는 적폐를 청산한 뒤에야 진정한 《국민통합》도 가능해진다. 초불과 함께 갈것인가, 적폐세력과 타협하며 력사에 잘못을 지을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초불의 편에 설것을 결정하고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성일

본사기자



《넌편, 넌편 가림없이 물고뜯는다》

최근 남조선에서 서울시장보선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대부가 소란스럽게 그지없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야권 후보단일화》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서로 얼굴을 붉히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 《한겨레》, 《문화일보》 등은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 당》 대표가 제기한 《야권후보단일화》문제에 대해 《3월초에 단일화이야기를 하든지 그전에 《국민의 당》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 둘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하였다.

언론들은 《국민의 당》 대표의 최근 언행에 대해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국민의 당》 대

표가 《국민의 힘》 후보들에 대해 《나 아니면 안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내가 나가면 진다.》는 식으로 발언하는데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있는 한 그 결과는 《안두사미》 즉 《물두사미》로 될것이라고 평한 인물들과의 인터뷰내용도 실었다.

한편 《야권후보단일화》문제로 《국민의 힘》 내부도 편안치 않다고 한다.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내부의 움직임에 《기회주의》, 《공가루집안》이라는 말로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였고 이에 《국민의 힘》내부는 위위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중이라고 한다. 반면 《국민의 힘》의 거듭 거듭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국민의 당》 대표를 《유리그릇 다루듯 해

야 한다.》면서 《야권후보단일화》를 적극 부추기고있다고 한다. 그러가 하면 《국민의 힘》의 10여명의 서울시장후보들이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상대방에 대한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시스》, 《한국경제》 등은 이전 서 울시장과 이전 《미래통합

당》 원내대표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면서 후보경선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면서 남조선언론들은 넌편, 넌편 가림없이 물고뜯는다 야권정치인들에 대한 민심의 환멸이 날로 커가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쓰레기합의

남조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리켜의 초안보다 더욱 완화된 《국회》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로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분노가 날로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노컷뉴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명미만인 기업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킨것으로 하여 각계가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한 의원이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중 5명미만 기업들의 재해비중이 9만 6 687명(32.1%)이고, 전체 사망자 6 119명중 1 389명(22.7%)이 5명미만 기업에서 나왔다.》고 까발린 사실을 전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법이라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 《뉴스》은 전 국민주도동조합총련맹(민주로총)이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

벌법안》을 철회할것을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민주로총은 《후회》후회를 거듭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은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위해 력의결정이 들어가라》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민주로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가 끝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력사적경험을 통해 알고있다》면서 《정부는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철구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경고하였다고 언론은 전했다. 다른 언론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누데기틀

쓰레기로 만든 합의》, 《기업살인방조법》이라고 각계가 비난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한편 지난해말 남조선의 언론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련맹이 새 집행부를 구성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경향신문》, 《뉴스1》 등은 《민주로총의 새 위원장에 민주로총경기지역본부장이 선출됐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민주로총위원장이 된것은 력대 처음》이라고 하면서 새로 선출된 민주로총위원장이 《투쟁으로 새시대를 열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힌데 대해 전하였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총의 새 위원장에 민주로총경기지역본부장이 선출됐다. 비정규직노동자가 민주로총위원장이 된것은 력대 처음》이라고 하면서 새로 선출된 민주로총위원장이 《투쟁으로 새시대를 열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힌데 대해 전하였다.

본사기자



《탁상공론》



보수야당의 성폭력의혹사건에 대한 비난 고조

최근 남조선에서 《국민의 힘》이 소속인물들의 성폭력의혹사건으로 각계의 비난대상으로 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신문 《한겨레》는 10일 《(성누리당)오명 덕의위결기... 《국민의 힘》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는 4월 서울, 부산재보궐선거를 (여당 성비위(성희롱, 성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선거)로 규정했던 《국민의 힘》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잇달아 벌어진 당내 성폭력관련의혹들로부터 《성누리당》으로 불리웠던 과거의 오명이 덕의위결기 전전공공하는 모습이

다. 《국민의 힘》지도부는 지난 주 성폭력의혹으로 탈당, 자진사퇴한 당소속인물들에 대한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고있다. 원내에서도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목소리는 없다. 당이 추가조치를 할 가능성이 극히 적어보인다. 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을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성범죄알 무관용원칙》을 천명해왔던 강경조는 무색해졌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 힘》소속 한 시인은 《당의 상식적인 처신을 기대했지 결과로는 정반대》라며 《왜 당지도들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당지도

부 당사들의 공감능력이 0에 가깝기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하였다. 여당의 대변인은 론평을 통해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자정(자체로 정화하는 것)능력을 상실하고 검증시스템이 붕괴한것은 아닌가》라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실수생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골프를 치는 사람)를 보조해주는 사람)성추행 등이 《새누리당》 시절 벌어진 사건이다. 당명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행태는 달라진것이 없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우리와 무관하다.》라며 동돌리지 말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국민의 힘》을 비난하였다. 이보다 앞서 《뉴스시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시민단체인 시민단체위원회가 《국민의 힘》 의원의 성폭력의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